재정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 김준혁 서기관 대우

한국 개발 사업에 외국 자본 유치해야

'미핌을 관람하고 있던 중에 애국가가 들려왔다. 경제자유구역 부스 앞에서 전자 악기 3중주가 연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외국인 관람객이 그 앞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그 옆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김준혁 서기관 대우가 눈에 띄었다.

에디터 | 하유정 · 사진 | 이충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핌 아시아에 참여한 김 서기관 대우는 외국인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을 설명할 때 "The New Manhattan of the 21st Century North East Asia(21세기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 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송도를 맨해튼을 능가하는 최고의 경제자유구역 도시로 만들어 동북아의 중심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유망 기업의 정보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에 와서 살게 될 최고 외국인 경영진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과 학교 시설 유치를 위해 직접 해외에 나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서기관 대우는 이번 미핌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미핌 개최 가능성을 보고 왔다. 1회 미핌은 2006년 9월에 개최됐는데, 이번에는 11월로 변경됐다. 에디터도 궁금해했던 그 이유는 바로 날씨 때문이었다. 칸(Canne) 미핌이 18년 역사를 자랑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날씨와 무관치 않다. 유럽의 부호들이 저택을 짓고 사는 칸은 출장뿐 아니라 휴가를 가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9월의 홍콩은 너무 더워 11월 말에 개최됐는데, 유럽에 이어 많은 투자자를 보유한 미국의 추수감사절 시즌과 맞물려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주최 측에서는 이번 미핌 관람객이 작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체감 관람객은 1회 때보다 적었다고 김 서기관 대우는 말한다.

이에 비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한국의 9월은 미핌을 치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다. 또한 한국처럼 개발 사업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신도시, 기업 도시, 혁신 도시, 경제 자유 도시, 행복 도시에서 재개발 · 재건축 개발 프로젝트까지 말이다. 이렇듯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환경 덕분에 2008년 일본에서의 미핌 컨퍼런스(전시 제외)에 이어 2009년에는 인천에서 세계 도시 엑스포 개최와 함께 미핌 컨퍼런스(전시 제외)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그는 '시티케이프 두바이(Cityscape Dubai)' 에도 참여한 바 있다. 시티케이프 두바이는 중동 자본으로 만들어진 그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를 주로 전시하는 부동산 박람회다. 일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직접 오게 만들어 전 세계 개발 사업자와 돈 많은 중동인들을 연결해주는 교류의 장인 것이다. 이에 재경부도 미핌과 '시티케이프 인천(Cityscape Incheon)' 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가능성과 방법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만 끌어다가 개발을 진행해왔다. 아파트 사업, 신도시 사업 등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를 위해 2008년 2월에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부동산 박람회 참가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할 예정이다.

유가 급등으로 경제가 급성장한 러시아와 중동 국가의 홍보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김 서기관 대우는 2007년 3월, 칸 미핌에서 러시아가 강세를 보였는데 홍콩 미핌에서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투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에는 유전 개발, 철도 사업, 항공 우주 사업 등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 미핌에서의 러시아 강세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2007년이 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원년이다. 또 미핌의 각종 홍보물과 잡지에는 중동의 Nakeel, Dubai Properties 사가 자리 잡고 있어 중동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미핌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국제 부동산 박람회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자체의 홍보 부스만 널려 있을 뿐 일반 기업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국내 부동산 관련 회사도 글로벌한 투자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미핌 같은 국제 행사에 참여해 세계 시장의 투자 흐름을 익힐 필요가 있다.